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명절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 점검

부안군이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유통매장이 밀집된 지역(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설 명절 고객감사 할인 행사

민선 8기 정읍시 핵심 공약 사업인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시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회원가입 후 첫 주문한 고객에게 3일간 매일 200명씩 선착순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일 1회 배달료 최대 2000원 할인 쿠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아이폰-앱스토어,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에 위메프오를 검색해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맹 신청은 인터넷으로 위메프오 파트너스를 검색한 후 입점신청을 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고물가 장기화 추세와 소비경기 악화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조기완판 가능성

1분기 발행액 200억원...시민들 큰 호응 속 1월 중순 122억 판매대

정읍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사랑상품권' 1분기 발행액 200억원이 조기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자금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 정읍사랑상품권은 600억원 발행한다. 1분기 200억원, 2~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의 누적 가입자는 5만 4000명에 달하고 가맹점 또한 5100

개 넘어가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 분기별 발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1월 초 발행을 시작한 1분기 판매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1월 중순에 122억 판매가 완료돼 살날을 앞둔 2월 초에 완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분기 150억원 발행액은 4월 1일부터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1인당 월 70만원, 연 600만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구입한 정읍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구매 방법은 모바일 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앱)과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 가능하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설날에는 정읍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애용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만족도 99%

최종 완료자 120명 조사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공약 사업 중 하나인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에 순항하고 있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99%가 만족감을 표시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최종 완료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9.2%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완료자 전원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고, "씹는 불편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96.8%나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임플란트

틀니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모두 269명이 혜택을 받았다. 임플란트 193명(71.7%), 부분틀니 81명(30.1%), 완전틀니 42명(15.6%) 등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22년 지역건강조사에서 고창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48.1%였다. 보건소는 이번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표가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고창군은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틀니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내용으로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대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개 지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부지원 가능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1약당 최대 3개(2와 최대 6개)까지 보철 비용 지원(비급여)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 관리비 지원 등이다.

신청자는 보건소 치과실(560-8755), 진료검진팀(560-8709)을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임플란트·틀니 시술을 고민해온 저소득 노인들이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BM활성수공급 '일석이조' 큰 호응

축산냄새 저감·가축 생산성 향상 등 효과 얻어

시, "주 3회 농업기술센터서 무료 공급" 적극 홍보

정읍시가 BM활성수 공급으로 축산 냄새 저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얻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생물학적 상호 관계를 이용해 여러 가지 암석 내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한 물을 말한다.

시는 2014년부터 1일 5톤, 연간 최대 1,800톤을 생산해 지난해는 1,418여 농가에 1064톤의 BM활성수를 공급했다.

가축의 음용수 관리가 축산 성패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BM활성수를 활용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BM활성수는 주 3회(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급하며 지역 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개선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BM활성수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다"며 "BM



활성수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산면은 지난 26일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면민 등 100여명과 함께 하는 열린소통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 주산면, 2024년 열린소통대화 성료

부안군수·면민 등 100여명 참석

부안군 주산면(면장 신철호)은 지난 26일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면민 등 100여명과 함께 하는 열린소통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부안의 인재 양성을 위해 주산면체육회(회장 김백만)에서 부안군농장학기금 1백만원 기탁하였고, (주)P 바이오 대표 김진성님은 부안군 발전을 위해 2백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신철호 주산면장은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 등 2023년 주요성과를 시작으로 '주산면민을 이롭게 하자'는 비전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2023년 군정 주요성과 및 2024년 운영 방향이 담긴 동영상 시청하며 올 해 군정 구상을 들어

다볼 수 있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와 "군민과 함께 성장! 새로운 미래!" 열린소통대화 시간에는 면민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마을 경로당 2개소 및 사업장 2개소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새해덕담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추진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끝으로 주산면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신철호 주산면장은 "군과 민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면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산면민을 이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벼 육묘생산 지원사업 신청

구매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 2월 16일까지 접수해야

정읍시는 농가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생산(상토, 육묘) 지원사업을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벼 육묘생산 지원 대상은 정읍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로, 상토는 1㎡당 30포, 육묘는 300삼자를 지원한다.

상토와 육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구매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받

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0일에 시지부, 지역농협, 상도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양질의 상토, 육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 등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일정에 맞춰 상토와 육묘가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벼 재배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